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혁명전통선전에서 이룩하신 업적

공 영 속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전통을 적극 옹호선전하는데 앞장서심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10권 199페이지)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고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그러므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적극 선전하는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순결성을 고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해방후 어렵고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혁명가》, 《애국자》로 자처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자기들의 《투쟁경력》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저들의 주위에 끌어당기려고 날뛰는 조건에서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혁명전통선전을 단순히 항일무장투쟁력사에 대한 소개선전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는 중대한 사업으로 보시고 이 사업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심으로써 새 조국건설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혁명전통선전에서 이룩하신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전통선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선전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심으로써 건국사업에 대한 수령님의 령도적권위를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신것이다.

혁명전통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의 귀중한 재보이며 따라서 수령을 떠난 혁명전통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선전에서 기본은 수령의 위대성선전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항일무장투쟁시기 독창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적극 선전하시였다.

함경북도에서 활동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 주체34(1945)년 12월 1일 청진시 인민위원회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을 때였다. 이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싶어하는 일군들에게 인민정권건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고 유격구에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신데 대하여 말씀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참가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정권건설업적과 해방된 조국땅에 세울 인민정권의 력사적뿌리를 깊이 인식시켜주었다.

주체35(1946)년 봄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신흥리(당시)를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기나긴 세월 백두의 험한 산밭을 타고 일제놈들과 싸우시였다고,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 장군님께서 두만강연안일대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근거지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나누어주시

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독창적인 전법으로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적극 선전하시었다.

주체34(1945)년 11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소개하려고 새길신문사 기자들이 찾아온적이 있었다.

그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다만 장군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던 이야기는 얼마든지 말씀드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과 전법들에 대하여 생동한 실례를 들어가며 말씀해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에 대하여 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하시어 그들의 마음속에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심어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청진녀자중학교(당시)를 찾으시여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그처럼 어려웠던 조건에서도 아동단학교를 세워 어린이들을 공부시키도록 하시고 어찌다 생긴 조선사과를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들려주시었고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찾으시여서는 무기고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장군님께서 가볍고 쓰기 좋은 총은 너대원들에게 먼저 돌려주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라는것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되었다.

혁명전통을 선전하는데서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어주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신 김정숙동지의 정치활동은 해방후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속에서도 우리 인민들이 수령님을 우리 민족의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고 높이 받들어나가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혁명전통선전에서 이룩하신 업적은 다음으로 광범한 대중속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혁명정신과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귀중한 경험을 적극 소개선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이 건국사업에서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할수 있게 하신것이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커다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일제는 패망하고 도망치면서 공장, 기업소, 철도와 항만 등을 혹심하게 파괴하였으며 따라서 인민들의 생활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인민경제를 복구할 자재와 자금, 기술도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인민들속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발휘한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선전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계급적원썬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혁명투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인민들속에 심어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었다.

주체34(1945)년 12월 13일 청진녀자중학교를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대원들은 누구나 다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했다고 하시면서 오중훈련대장이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자기 련대를 사령부로 가장하고 적을 달고다니며 죽친데 대하여 감명깊게 말씀해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후순간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철저히 보위할수 있는것은 장군님께서 건재하셔야 조선혁명이 승승장구할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었기때문이라고, 선생님들은 이런 투사들의 정신과 의지를 본받아야 하며 후대들 한사람을 키워도 그런 불같은 혁명가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복구현장을 찾으시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적극 선전하시였다.

주체34(1945)년 12월 12일 김책제철련합기업소(당시 청진제철소)를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노동자들과 함께 쇠물이 식어붙은 용광로를 살릴 방도를 토의하시였다. 이날 김정숙동지께서는 폭약을 구할 방도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물론 폭약을 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앉아서 누가 폭약을 가져다줄 때까지 기다릴수야 없지 않는가, 항일혁명투사들은 맨주먹으로 산에서 화약을 만들어 연길폭탄을 제조하여 일제놈들을 죽였는데 이런 정신, 이런 기백만 있다면 지금 조건에서야 왜 폭약을 못 구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노동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 백두밀림에서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야말로 건국사업앞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체의 힘으로 복구사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한 귀중한 투쟁경험에 대해서도 널리 소개선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항일의 나날에 마련된 투쟁경험은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것이였으며 그것은 건국의 초행길을 자체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혁명적학습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학습을 잘하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주체34(1945)년 12월 11일 김정숙동지께서는 청진시 인곡동 녀성들과 뜻깊은 상봉모임을 하시는 자리에서 녀성들이 새 조국건설에 적극 참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글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은 전투가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글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피곤이 몰려오고 몸이 얼어들어도 우등불가에서 밤가는줄 모르고 공부하였으며 험한 산을 오르내리는 행군길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배웠다고 하시였다. 그렇기때문에 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었고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녀성들과 인민들에게 학습의 중요성을 심어주었을뿐아니라 것처럼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학습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학습기풍을 본받아 하루빨리 글을 배워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가다듬게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밖에도 병원을 찾으실 때마다 의료일군들에게 항일무장투쟁시기 약품도 치료도구도 없었지만 여러가지 약초와 송진, 짐승을 리용하여 자체의 힘으로 약을 만들었으며 환자에 대한 뜨거운 정성을 지니고 환자들을 치료하여 대오에 설수 있게 해준 경험을 생동하게 이야기하여주시였다. 청진녀자중학교와 삼흥중학교(당시)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을 찾으시여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근거지에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교과서와 학습장, 연필을 비롯한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어린이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훌륭히 키운 경험을 교원들에게 말씀해주시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과 그 나날에 이룩된 귀중한 경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광범한 인민들에게 건국사업에서 지녀야 할 혁명적기풍과 태도를 깊이 새겨주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혁명전통선전에서 이룩하신 업적은 다음으로 혁명전통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심으로써 그 실효성이 높게 발휘되도록 하신것이다.

선전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것은 그 형식과 방법에 적지 않게 달려있다.

정치사업의 내용이 좋을뿐아니라 거기에 훌륭한 형식과 방법까지 안받침되어야 대중에게 보다 큰 감동을 주고 교양효과도 훨씬 높일수 있다.

항일의 나날 능숙하고 세련된 군중정치활동가로서 광범한 대중과 혁명군대원들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시는 나날에 귀중한 경험을 쌓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정치사업의 숭고한 본보기를 보여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대중과 접촉하는 모든 기회에 해설과 담화의 방법으로 선전사업을 끊임없이 벌리시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활동하시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를 직접 만나뵈옵고 그이의 혁명업적을 들으려고 각 계각층의 인민들은 매일과 같이 숙소로 찾아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과 스스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 어떤 격식과 틀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보여주신 탁월한 전략과 전법에 대하여 해설해주시고 수령님께서 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이야기하여주시였으며 사랑하는 자식들을 남의 집 울바자아래에 남겨두고 결연히 혁명의 길에 나선 녀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시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김정숙동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녀성들은 시련으로 가득찼던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면서 조국해방위업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백두광야에 붉은 피를 뿌리며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의 위훈을 심장으로 체득할수 있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을 널리 보급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혁명전통선전을 적극 진행하시었다.

주체34(1945)년 11월 30일 청진시 조선회관에서는 김정숙동지를 환영하는 예술인들의 간단한 축하공연이 있었다. 축하공연후 모임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김정숙동지께 노래를 불러주실것을 요청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요청하니 백두밀림에서 싸울 때 고향이 그리고 여러 동무들이 그리울 때마다 부르곤 하던 노래 한곡을 불러보겠다고 하시면서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사향가》를 부르시었다.

모임참가자들이 일제히 재청을 요구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유가》를 부르시였으며

3청을 요구하자 여성투사들과 함께 《유격대행진곡》, 《녀성해방가》를 련속 부르시였다.

그로부터 며칠 지난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청진시 녀맹원들과의 좌담회를 가지시었을 때에도 노래를 불러주실것을 요청하는 녀성들앞에서 《반일전가》를 부르시였다. 얼마 후 청진시인민들속에서는 혁명가요들이 급속히 보급되어 널리 불리워지기 시작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부르신 혁명가요들은 인민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고 그들을 새 조국건설에 힘있게 불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출판물들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내용을 반영한 글을 많이 싣도록 하여 사람들에게 혁명전통의 내용을 인식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해방직후만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력사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되지 못하였으며 도서들도 만들지 못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12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담은 도서를 만들것을 발기하시고 이 사업을 적극 밀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당보, 군보를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들에서도 항일무장투쟁시기 진행된 전투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동지의 보살피심속에서 군보에는 창간초기부터 고정표제로 《김일성장군항일유격전실화》가 설정되고 여기에 처음으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진행된 전투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체38(1949)년 6월 4일 군보에는 《력사적인 보천보전투 12주년에 제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항일무장투쟁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의의가 실리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밖에도 혁명전통을 반영한 연극, 시를 비롯한 문예작품을 창작보급하기 위한 사업,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투쟁자료를 많이 찾아내기 위한 사업 등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은 해방후 광범한 대중속에 조국해방위업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과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며 항일혁명선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 민주조선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설 굳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하였다.